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60호

발행일 : 2021.04.11.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무던 손끝에 허락하신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꽂이의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충성하므로,
겉코 늑늑치 않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겠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걷는 그 길을 꽃길처럼 걷게 하실
주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출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출35:30~32)



꽃 선물은 “장미 딱 한 송이가 합리적이다”라고 외쳤던 꽃 박애자였던 구옥순이 여호와이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두 번째 부족하고 서투른 간증으로 또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놓았던 코로나19

20년이 넘고 30년이 다되도록 예배가 “멈춤”이었던 적도, 교회의 모임이 중지되었던 적도 없었는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렸으며, 생활은 불안과 어수선했음이 가득한 분위기로 너무도 칙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화사하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삼천 원짜리 조그마한 철쭉 6개

이 조그만 화분 6개는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철쭉으로 시작해 베고니아, 카랑코예, 제라늄, 오렌지 자스민, 호야, 푸미라, 팔손이 아레카야자, 포이세티아, 스파트필름, 개나리자스민 이러저러한 다육이들.... 참 많이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전에는 죽여보내는 것들이 더 많았는데, 꽃을 주고 새순을 주면서 나로하여금 더 열심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분에 온 정성을 쏟던 중에 꽃꽂이를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전도사님의 권면에 순종하여 꽃 선물은 낭비라고 생각하던 나는 꽃꽂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꽃의 무식자 꽃꽂이의 문외한인 사람이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꽃꽂이를 시작한 지 딱 6개월!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장미라 집사님의 결혼은 백 번, 천 번, 만 번 축복할만한 경사스러운 일이었으나 신랑 따라간다니 이 일은 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 만큼의 고통과 힘듦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겠으나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라며 만류하지 않으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야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꽃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던 나의 꽃꽂이 홀로서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결정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인데 강대상 꽃을 사러 가는 무슨 꽃을 사야 하는지 이 꽃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숨만 푹푹 쉬며 손가락은 왔다 갔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사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주 한주 꽃꽂이 홀로서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힘듦이나 어려움이 아닌 즐거움과 재미가 기쁨과 감사함 속에 다음 주 꽃꽂이가 기다려지고 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표현이 또한 달라졌습니다.

힘듦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못하였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찬 나의 무지함의 소치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참 많이도 고백하고 전하였고 은혜로 나눈 말씀이었고..... 그러하였는데, 그 말씀을 나의 사역에 적용하지 못하였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한다는 지극히 사람의 생각에 갇혀 힘들어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함께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빈틈이 없으시며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조그마한 화분을 시작으로 꽃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꽃 한 송이 내 손으로 꽃아 본 적 없는 무능한 손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꽃을 보는 시선까지도 표현법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꽃과 함께 살아온 지난 일 년 부끄럽게도 ‘심방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지’라는 의지적인 노력은 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 보다도 주신 말씀대로 살았던 해였습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으려 무던히도 노력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온 일 년의 삶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무딘 손끝에 허락하신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꽂이의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충성하므로, 결코 녹록지 않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겠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걷는 그 길을 꽃길처럼 걷게 하실 주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이성재 청년



함께하는
가족



어릴때
귀엽기라도
했었다.



변함없는
우정



<성도알아가기>

이성재 청년

1.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 언제나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진순복음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으로, 방송실 위원으로,
그리고 찬양대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 이성재입니다.

2.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졸업반이라 취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 대비하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3.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세요.

좋은 점과 불편한 점 두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코치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제한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가끔
이러한 환경과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에 교만한 모습이 나올려고
하는게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4.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자랑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유머와 재치로 가족에게 웃음을 나게
해 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다정하시고 고민을 늘 진지하게 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멘토로서 해결의 방향도 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요리를
정말 잘 해 주셔서 음식으로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5. 25년 인생! 사는 동안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다른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교회 다니냐고 묻자 말하길 주
저하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만약 시간을 되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주님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6.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은 집안 살림도 육아도 공동으로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일때부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안일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청소 빨래 설거지 중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요?

집안일에 대해서는 의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단 눈에 보이면 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서 고른다면 청소에 대해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와 빨래는 세제 양 조절을 아직 잘 못해서 손에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7. 이성재 청년은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 할 수 있어요? 비법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구요. 어릴 적부터 찬양대에 세우고 찬양 예배 때 싱어로 봉사를 하게 해 주신 덕분에 지금 찬양으로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찬양대에 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지금 하고있는 공부는 무엇에 관한 학문인가요?

공부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토목은 여러분들이 매일 다니시는 도로와 물의 길인 상하수도 공항, 항구, 다리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토목학의 시작은 복잡한 공식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으로 몇 번 좌절했었는데 기도와 노력으로 인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9. 여동생 둘이 있어요. 큰 동생과 작은 동생에 대한 오빠로서의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작은 동생은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친절하고 상냥한 오빠가 되려 노력하고 있고 때론 동생에게 기다려 줄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큰 동생은 저와 많은 대화로 고민도 서로 나누며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동생들은 종종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해 주기도 하는 저에게 소중한 가족입니다.

10. 자신의 십년 후의 모습을 스케치해 주세요.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지금 저의 모토이자 비전은 "주님의 일을 함께 늘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교회에서 누구보다 저를 필요로 하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그것에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11. 세상이 너무 악해서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성재 성도님의 분별력은 어느 때 발휘되나요?

세상이 악하다고 제일 많이 느꼈던 곳은 군대였습니다. 많은 동기들과 생활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자신도 세상의 악함에 잠시 빠져 있었구나 라는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삼고 다니엘처럼 세상 것과 부딪칠 때에 분별의 영을 구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저는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면 웃음을 짓는 저의 모습이 거울 너머로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으면 상대가 편하게 흔쾌히 승낙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장점에 대해서 처음 말해보는데 좀 부끄럽네요.

13. 아내감으로 바라고 원하는 성도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디테일하게 부탁해요. 교회에 정말 존경스럽고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전도사님 되시는 어머니 스타일의 아내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 바야흐로 또다시 꽃피는 봄이 도래했어요. 올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재작년까지 저는 봄만 되면 항상 45번(지금은 450번이죠) 버스를 타고 벚꽃을 보러 다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차 풀리게 된다면 제일 먼저 벚꽃을 보고 사진을 찍을거 같습니다.

15. 3월에는 네 손을 그곳에 얹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은 어디에 손을 얹고 계시나요?

저는 저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펴가며 저에게 부족한 말씀을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16. 하루에 꼭 한번 씩은 천국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은 그 천국을 무엇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찬양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만큼 찬양으로 천국 소망을 이뤄 나아가고 싶습니다.

17. 어머니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어 어릴적 모르고 살았지만
머 머(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니 니(이)제 제가 보답할게요

18. 나에게 꿈돈 백만원이 오늘 생긴다면 그걸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백만원이 생긴다면 코로나로 한동안 가지 못했던 가족 여행을 가는데 쓰고 싶습니다. 제 돈으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드리는 것이 제 첫 소망입니다.

19. 군에 있을 때 군종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혹시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나요?

처음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아닌 앞장선 리더로서 가는 사람이 됐던 기회였고 앞에 서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올해 초반 부담되었던 청년회 회장 자리를 빠르게 적응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20. 하나님은 내게 () 이다.

하나님은 제게 "법이자 길" 이십니다

21.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인가요?

여호와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편 84:11)

<권찰일기>

김경숙 권찰

오늘은 수요일...

아침 일찍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오늘 할 일을 다 한듯한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하고 상쾌한 듯
기분이 좋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오늘 나눔구역 특송이 있어서 구역 식들과 맞춰봐야 한다.

같은 구역식구 이신애 권찰님을 픽업해서 일찍 교회에 갔다.

어제 민지(딸)한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니 안 간다고 했기에

조금 서운했지만 말없이 그냥 혼자 나왔다.

특송을 맞춰보고 코로나로 인해 작성해야 하는

출입명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민지가 보였다.

"어~ 민지네" 하고 놀랐다.

정말 뜻밖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민지가 하는 말이 교회에 갈까 말까를
백번도 더 생각했다고 한다.

민지의 의지가 아님을 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심에 감사드린다.

믿음을 주시고 건강한 몸과 영적으로

강한 민지가 되길 오늘도 기도한다.



수신나가 고백합니다

원재옥 권사

오늘 모든 식구들이 출근~
 남편 7시, 하은 8시, 나 8시30분
 쌍둥이는 어제 학교 기숙사로 보내고
 모두의 위치로 움직일수 있음에 감사~
 3월 첫날부터 전화통화 불나서 감사~
 하루 스케줄이 고객 만남과 큰 딸의 택배 심부름임에 감사~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 회의 자료, 간식 준비 등등에 감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쓰임 받고
 있다고 맘 먹으며 감사~
 전도하고 싶은 가정이 있어서 섬기고
 기도할수 있어서 감사~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 감사~
 부족한 제 옆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 주심 감사~
 동생의 섬김으로 시래기 국밥 점심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서 감
 사~
 성전 기도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
 비싼 대파(금파) 얻을 수 있어서 감사~
 저녁은 작은 시어머님이 준비하신 냉이 된장국으로 맛있게 먹
 을 수 있어서 감사 ^^ ~
 모두 평안한 날 되세요~

감사릴레이

이윤경 집사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오른쪽 눈을 가리고 계셔서 많이 불편해 하시기에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저녁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로 정하고 양파 시금치 당근을 넣고 잡채를 무쳤어요. 냉면기에 잡채를 어지간히 많이 드렸는데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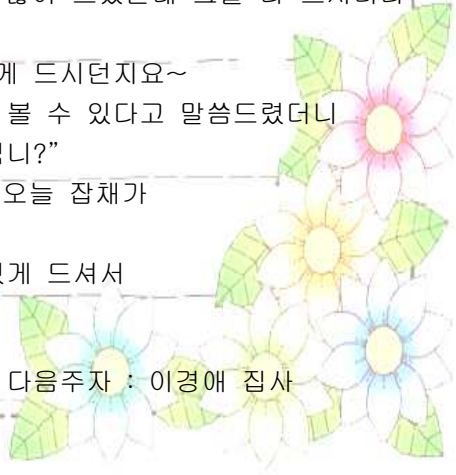
아픈 눈을 하시고도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요~

어머니나 오셔야 저도 잡채 먹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실력 어디다 두려고 안 해 먹니?”

라며 립서비스까지 해 주셨어요. 오늘 잡채가
정말 맛있으셨나봐요~~

해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맛있게 드셔서
더 감사한 날이었습시다.

다음주자 : 이경애 집사



돌아온 딸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소녀는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이 그리워 고향 집에 내려갔다. 밤중에 가 보니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뛰어 놀던 잔디밭도 보였다.

달밤에 자기 집을 바라보니 담장 옆 대무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

그 소녀는 문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

조용한 음성으로 불렀다. 그러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뛰어 나왔다.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느냐? 네가 집을 나간 뒤 대문을 달아보지 못했단다.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혹시 밤중에 딸이 돌아올까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가 딸이 부르는 작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그 딸을 맞이했다.

웃으십시오!

-이산지 학생-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한다면
누가 우승 후보일까요?

한 번 맞춰보세요~~

앞으나 서나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는 학
생! 특히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죠.

또 핸드폰도 좋아하는듯 해요^^

항상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학생이고
요~ 오직 주님만 바라는 학생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과의 타협이란 것도 결
코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출찍 커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산지 학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앙 철저한 이산지 학생
입니다. 중학생 되니 예쁜 교복도 입고 제법 학생 티가 나네요.

우리교회 성도님들도 이산지 학생의 성경 읽는 모습을 통해 성경 1독, 2
독...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더욱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부모님과 교회에 큰 자랑거리 “이산지”로서의 삶을
기대합니다.

작년 신랑 취미인 낚시를
오천항으로 갔는데
참돔을 신랑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날
-정현미 집사님-



사람 없는 바닷가에서도
마스크는 필수지요 ~
모래 바닥에
인증샷 하나 정도는 ^ ^
-조은혜 권찰님-



성도님들의
이 모
저 모



라이프지 5주년을 맞아
간증상과 성도 알아가기상
시상했던 날 사진이에요.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

-이윤경 집사님-



매일 매일 말씀 실사
읽고 듣고
신앙생활 짜짜하신
최집사님 부러워요 ~

-이성옥 성도님-

* 사랑을 아면... - essay.332 -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분을 향한 나의 모습은...?

*너희는 나를 불러 두어 두어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46)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곳은 5곳



성 경 퍼 즐

					1 가		2 안		
				3 신			4	5 등	
			6 고					굴	
		7 약					8 블		셋
	9 삼							차	
10 이									
11 라			스	타					

가로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3.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00을 무너뜨렸지?
4.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의 00을 마지막 힘을 다해 밀었어.

좌우명

박기숙 집사

새 학기가 되어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께서 "혹시 **이의 좌우명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글쎄요, 뭘까요?"

했더니 아이의 좌우명을 쪽 읽어 주시더군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즐겨라. 즐겁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잘할 수 있고 이왕하는거 프로 의식을 가지고 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거 제가 했던 말인데....."

아이가 하기 싫다고 짜증 내거나 힘들어 할 때마다

제가 늘 아이에게 하던 말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 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평소 저의 생각을 들려 주었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아이는 기억하고 고백하는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한편으로 뿌듯하고 감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적이든 신앙적이든 부딪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라면 즐겨보자. 이왕 하는거 프로가 되자"

했는데 언젠가부터 나는 이런 모습이 흐려져 버렸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입술은 불평이었고, 행동은 게으름이었으며, 생각은 부정적이었음을 동시에 깨달으니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말만 앞선 자였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는 뒤로 숨고 예배를 드리며 나의 진심을 덮고 찬양하며 감사를 감추고 기도 속에 습관을 물들이고 맡겨진 일들에 게으름으로 도배를 한 부끄러운 내 삶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멈추지 않는 잘못된 행실을 보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아이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늦지 않아 감사합니다.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니기에 아직도 다듬을 것 투성이인 저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연단으로 정금같이 되기까지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나의 삶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사렙다 과부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관찰의 중요성

미술에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이 1년간 비둘기의 발만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거리의 비둘기를 관찰하며 엄청난 양의 비둘기 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다양한 사물을 그리지 않고 비둘기의 발만 그리는 거니?"

그러자 소년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둘기 발만 계속 그리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소년은 비둘기 발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소년이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둘기 발만 열심히 그렸던 소년은 놀랍게도 사람의 얼굴, 몸체의 세부적인 특징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입체파의 대가가 된 피카소입니다. 일찍이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관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 중에서

어설픔게 여러 가지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에 지독히 파고든다는 건 어쩌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삼손

뜻 : 태양과 같음



삼손은 "태양과 같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나라 단 지파의 소라땅에서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시대는 블레셋 나라가 이 지역을 40년 동안 다스리던 때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무엘과 세례요한과 같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보내셨다. 나실인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는 사람이었다.

특수한 선택만큼이나 각별한 은혜와 은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동반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사에는 그에 대등한 사명이 수반되고 있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마하네단에서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였었다. 그러나 나실인답지 않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 사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였다(삿14-15:8). 부모의 반대와 나실인의 탈선된 행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결혼을 진행한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출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삼손은 20년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이방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첫번째의 아내가 변심하여 그 아버지의 허락으로 삼손의 품을 떠나게 된다.

이 일로 인해 여우 3백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 곡식밭과 감람원이 불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부녀가 불사름을 받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의해 죽게 되었다. 이로 인한 오해와 감정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는 나쁜 감정이 더해갔고 나귀 턱뼈로 1천명을 살해하는 의미없는 전쟁을 갖게 되었다.

그 뒤에 나실인으로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녀를 취하는데까지 타락하게 되었다. 이어서 들릴라를 사랑하는 무절제한 도덕성이 그의 불행한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다. 계속되는 타락이나 깨달음이 없는 탈선은 심판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비극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간교한 블레셋 사람들이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하여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함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결국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그는 밧줄에 묶인 채 두 눈이 뽑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 그후 머리카락이 자라 다곤의 축제일에 기둥을 뽑아 3천명과 함께 삼손도 세상을 떠났다.

▷ 교훈과 적용 ◁

첫째, 도덕적인 성결과 신앙의 경건은 일치한다. 깨끗이 살자.

둘째, 구국을 위한 적에 대한 살상이 아닌 분별없는 도륙은 무의미했다.
능력을 성별시키자.

유머

뭐라고 적을까요?

채소 나라와 과일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오이군의 맨 앞에서 용맹하게 싸우던 노각장군이 그만 화살에 맞아 전사를 했으니... 그를 따르던 아군뿐만 아니라 당근과 배추 군들도 슬퍼했습니다.

무덤을 만들던 한 오이 병사가 묘비를 세우려다... 총 사령관인 무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묘비에다 뭐라고 적을까요?”

“글세... 어떻게 쓰면 그의 공적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무 장군이 말했습니다.

“오이무침 이라고 적는 게 좋겠어!” “오잉?”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인물>

베를린 장벽을 허문 빌리 브란트



두꺼운 벽을 허물고 지금은 하나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독일 국민들.

그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나치의 잘못을 사과하며 폴란드 무명용사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던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는 많은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서독과 동독의 교류를 지속시켜 통일 독일의 기반을 닦고 유럽 대륙에 평화를 정착시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하루는 그에게 긴급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당시 동독 총리를 맡고 있던 에리히 호네커의 조카딸이 서독으로 망명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차에서 한 서독 청년을 우연히 만났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 망명을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냉전 시절인 데다, 총리의 조카라는 신분이기엔 그녀의 망명은 독일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브란트는 망명 신청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일단 이 여성을 동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호네커 총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브란트는 사정을 설명하며 조카딸에게 정식 여권을 발급해 서독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기적 같은 소식 하나가 독일 전역에 퍼졌습니다. 호네커 총리의 조카딸이 브란트의 제안대로 정식 여권을 가지고 서독에 무사히 들어와 사랑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호네커 총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옳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독과 동독은 분단의 상황에서도 서로 문을 열고 국민들이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했고, 결국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구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 번호가 써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2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로사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마냥 영영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보고 '술집 작부,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구요. 매일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욱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구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흠,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 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서 사이다 한 병을 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다섯 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 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애 용욱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
 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구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얹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
 나 우시는지 두 눈이 솔망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구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욱아'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
 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
 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 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
 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글은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한 용욱이의 글입니다.



시사용어 Briefing

번아웃 신드롬(Burnout Syndrom)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불타서 없어진다(burn out)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소진(消盡) 증후군 혹은 연소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등장한 용어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노동 · 생산 · 복지 같은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경영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에서 현대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번아웃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극단적인 형태라면서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도의 피로감과 의욕 상실, 그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린다.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탓하는 자기혐오마저 생긴다. 때론 업무를 거부해버리기도 한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등(Gas Light)>이라는 연극에서 비롯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 이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 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럴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한다. 이에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인 지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

고슴도치 딜레마(Hedgehog's dilemma)

고슴도치 딜레마란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인간관계에서 애착의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다. 최근 1인 가족의 출현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의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부활절예배 / 4월 4일 오전11시
2. 헌신예배 / 루디아여선, 4월 4일 오후5시
수산나여선, 4월 18일 오후5시
에스더여선, 4월 25일 오후5시
3. 봄여행 / 4월 19일 오전9시

◎ 공지사항

1. 생활실천표어 /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2. 신앙서적 / 감사 '이찬수'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한승권목사 / 충서지방회 회장 연임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